

## 러시아와 중국 안보관계

### 1. 러-중 군사협력의 배경

- 양국은 대서방건제, 미국 주도 국제질서 반대, 다극주의 창출
-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미일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 미국과 NATO에 맞서기 위해 러-중-인 3각 동맹 구상
- 양국은 국가 경제발전에 매진하기 위해 국제환경, 특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필요
- 양국의 안보협력의 우선순위대상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친서방화 저지

### 2. 신밀월관계에서 러-중 군사훈련

#### 1) 배경

- 이 훈련은 러중 상호신뢰의 강화, 방위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및 동북아에서 양국의 군사협력과 군사적 존재감
- 양국은 이 훈련을 통해 대만문제에 미국의 개입차단,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주둔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및 중앙아시아의 잠재적 불안대비
- 러중 합동훈련은 동북아 일대 강화되는 미일 군사협력체제 대응
- 무기교역. 이 훈련기간 동안 동원된 러시아제 첨단무기의 성능을 중국에 보여줌으로써 베이징이 무기 구매

#### 2) 의미

- 이번 러중 합동훈련은 세계 군사전략의 중심축 이동을 의미하며, 세계 군사전략의 중심축이 아-태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한편으로 군사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나타냄

### 3. 러-중 국경문제 해결

- 2004년 10월 14일 양국은 중요한 정치적 조치를 취함. 41년을 끌어온 영토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 양국은 미해결된 국경문제의 매듭짓기 위해 양국간 분할지배하기로 한 아르군강의 불쇼이섬과 아무르강의 불쇼이 우수리스크섬에 대한 추가합의가 이뤄짐. 2005년 6월 2일 양국은 추가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간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경문제가 해결됨.

#### 1) 국경문제 해결의 의미

- 양국 국경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양국의 상호존중, 평등, 상호이해 그리고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해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과 후진타오가 정확하게 언급한 것 처럼,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한 국경분쟁 해결의 성공적인 사례이기도하다.

#### 4.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양국협력

- 러시아와 중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분리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96년 옛 소련에 속했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4개국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지역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를 만들어 군사분야에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음.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란은 참관국 자격으로 합류.

##### 1) 상하이협력기구 '평화사명-2007'

-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협력기구 회원국 모두 참가한 훈련(장소: 첼라빈스크 8월 9일-17일)

- 이번 훈련은 중앙아시아의 테러분자와 민족분열주의자, 종교극단주의자 등 3개 세력을 겨냥한 평화훈련

- 그러나 이번 훈련은 미국을 겨냥한 것. 중국은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강한 불만. 러시아는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에 강한 압박을 받고있음.

- 안드레이 골로보추크 러시아국방위원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고 세계에서 미국이 멋대로 독주하는 것을 차단하길 원한다"고 말함.

#### 5. 러-중-인 3국 정상회담 정례화

- 3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대국들이다. 가장 큰 관심은 2006년 7월 17일 첫 3국 정상회담이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나 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다.

- 중국 인민대학의 진찬룽교수는 "러시아는 서쪽으로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았지만 동쪽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노력이 이번 3국 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 1) 동아시아 협력체를 위한 3국협력

문제는 인도의 태도이다. 인도 언론들은 3국연합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임. 인민일보 자매인 환구시보는 "현재 인도 대외전략의 핵심 축은 미국"이라며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3국협력체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 따라서 인도는 표면적으로 중국/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일보, 2006년 7월 19일)

#### 6. 러-중 무기교역

- 러시아의 대외무기 수출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주요 무기거래 파트너이다. 이들 두 국가가 러시아무기 수출의 80%를 차지. 해를 거듭할수록 러시아의 대외무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61억달러 대외 무기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64.3%이었지만, 2006년 65억달러 가운데 38.3%, 2007년 70억달러 가운데 21%, 2008년 80억달러 가운데 18%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2006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향후 러시아의 대중 무기판매는 10%-15% 정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체계를 적극도입하여 군사력 강화를 달성하려고 함. 중국측은 첨단무기도입, 핵관련 기술을 포함한 첨단군사기술의 도입 면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실리적 기대를 할 수 있음. 중국의 해공군력 약점을 보완하는데 러시아군 병기 구입

- 중국이 과거 재래식 무기 구입에 의존하기보다 이제 첨단 장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7. 러-중 군사협력의 과제

##### 1) 중국위협론

- 최근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급격한 방위예산 증액과 군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음.

- 중국위협론의 배경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비확충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판단논리. 러시아국경선에 150만 명의 병력을 가진 중국이 향후 10년후에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야기 가능성.

##### 2)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두려움

-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이해충돌 가능성 대비 중국에 무기를 판매해야 하는지 논란. 만약 러시아가 중국에 무기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할 경우 중국의 군현대화에 차질. 그러나 푸탄대학 국제문제 전문가 덩리 쉐교수는 "러시아가 한동안은 앞서가겠지만 중국이 결국 따라잡을 것"이라며 "중국은 누구에게도 무시무시한 기술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08년 3월 3일)

### 3) 유럽연합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 가능성

- 중국은 군사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첨단 군사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도 원하고 있음. 만약 유럽연합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한다면, 러시아의대외무기 판매에 있어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주문이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수산업체는 무기 판매 후 서비스 질 제공하는 것과 전자부분인 최첨단 분야로 혁신하는 것에 능력이 부족. 서구에서 좀더 정교한 무기 디자인과 경쟁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무기 생산자들에게는 불리한 입장.

### 4) 러-중 무기교역의 위기

- 중국이 큰돈 들여 구입한 러시아제 무기의 조악한 품질때문. 구축함 미사일발사기능문제.
- 무기구입연기. 2억달러 상륙정도입취소. 25억달러 수호이-33 48대 도입협상 지연.
- 중국군 러시아 최신무기제조 기술도입을 위한 의도적 시위.
- 중국이 전투기 젠-10을 파키스탄 수출 러시아제동. 엔진기술 제공한 러시아 반대.

### 8. 전략적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시각

- 미국에 대한 공통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한 동맹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은 낮다.
-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잠재적인 군사동맹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군사기술협력도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
- 그러나 안보의 비전통적분야(테러, 마약, 분리주의 등)에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협력 모티브가 확대 발전될 수 있다.

### 9. 러-중 군사협력 발전전망

- 러중 군사협력은 중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러시아의 국가재정 확보

필요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함.

- 양국은 단순 무기교역이상의 다각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추구. 러중은 41년만에 양국 국경 문제해결,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실시 등 본격적인 군사협력 모색

- 중국의 군대현대화 차원에서 러시아의 최신무기를 도입하려고 함. 일부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이 아-태지역의 안보질서에 실질적으로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러시아도 이 지역 세력균형의 유지와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러중 군사기술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

- 양국은 서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양국은 서로 의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자 다른 파트너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음.

##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Russia exports weapons to about 80 countries. Although China and India remain key buyers of Russian-made weaponry, Moscow has been actively expanding its presence on arms markets in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 1. Russia exports weapons

- The most popular types of weaponry bought from Russia are Sukhoi and MiG fighters, helicopters, battle tanks,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d infantry fighting vehicles.

- Russia also maintains traditionally strong positions in sales of small arms, and anti-tank and air-defense missile systems.

### 2. Russia's sales of arms to China

- Russia's sales of arms and equipment to China made up 40 percent of its total military exports, earning as much as \$2.5 billion a year. China now has more than 280 Russian Sukhoi Su-27 and Su-30 Flanker fighters, 12 missile-armed submarines and four destroyers equipped with supersonic anti-ship missiles.

### 3. Russian-Chinese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 Russian-Chinese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totals \$16 billion since 2001, but the Chinese share of Russian arms exports is decreasing.
- "In the past 15 years, China has been one of our major customers, buying up to \$2.7 billion-worth of Russian-made weaponry. The value of Russian-Chinese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since 2001 totals \$16 billion," Rosoboronexport's general director Anatoly Isaikin said.
- According to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China received 94 percent of its major conventional weapons from Russia in the five years to 2007. They included combat aircraft, helicopters, warships, submarines, air defense systems and missiles.
- Russia has sold China Su-27 and Su-30 fighters, Kilo class diesel submarines, and air-defense systems, among other types of weapons and equipment.
- However, the official said the Chinese share of Russian arms exports decreased to 18% last year, and could drop to 10-15% in the future for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Russia's expansion into other arms markets.
- He said Russia was unfazed by the prospect, because the sales volumes remained relatively high.
- "After all, sales volumes [to China] are still high, averaging \$1 billion a year," Isaikin said, adding that Russia's first arms deal of this year was signed with China for the delivery of more than 100 jet engines for the Chinese J-10 fighter.
- Military analysts believe, however, that Russian-Chinese military cooperation has been overshadowed by Russia's concerns that China may use Russian technology to produce their own copycat versions of military equipment.
- For instance, Russia has refused to sell its Su-33 carrier-based(함재) fighters to China over fears that Beijing could produce cheaper export versions of the aircraft.
- Russian Defense Ministry sources earlier confirmed that the refusal was due to findings that China had produced its own copycat version of the Su-27SK fighter jet in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 Solovtsov said both countries were making efforts to resolve existing problems.
- "We signed an agreement in December last year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sphere of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the general said, adding that mechanism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document would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 He also said that China would continue to buy military transport aircraft and aircraft engines from Russia, and was also interested in air-defense systems and naval equipment.(The Moscow Times, 13 April 2009)

#### 4. Problems over military sales

- China is intent on developing its domestic arms industry to become as self-sufficient as possible. It turned to Russia because of U.S. and European restrictions of exports of arms and related technologies. Russian and Western analysts say that China has stopped licensed production of Sukhoi fighters because it has been able to copy them and make local versions.

- This has reinforced Russian reluctance to provide more advanced military equipment that China wants, including T-90 tanks, artillery and multi-role helicopters. Moscow's lack of trust in future Chinese intentions is in marked contrast with the depth of Russian military ties with India.